마음굴림, 본래의 지혜를 깨우는 시간

2025 부산국제불교박람회, 8월 7일 개막

부산 벡스코서, 10일까지 375개 부스 참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마음굴림' 체험 운영
현대불교신문, 디지털 전법 콘텐츠 부스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마음굴림이란 모든 것을 근본 마음자리(참나)로 되돌려서 본래의 지혜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은 오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25 부산국제불교박람회'에 참가해 체험형 부스 '마음굴림'을 운영한다.

'마음굴림'은 불교의 지혜를 어렵지 않게 삶 속에서 체험하도록 구성된 공간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참가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시민들이 자신 안에 이미 갖고 있는 지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부스에서는 '근본, 몸, 감정, 관계'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미지 법문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한다. 참가자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을 선택한 뒤, 그와 관련된 삶의 고민을 상담자와 나누며 마음을 정리하고 방향을 찾는 소규모 대화의 시간이 제공된다.

체험은 총 3개의 방에서 4인 이하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상담은 2개의 공간에서 2인 이하로 운영돼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깊이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지혜 카드와 시각 이미지 중심의 직관적인 구성은 초심자도 쉽게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혜벽 스님은 "누구나 자기 안에 본래의 밝은 지혜가 이미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에 맡기고 굴려보는 체험이 되길 바란다"며 "불교가 어렵지 않고 재미있으며, 삶 속에서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부스에서는 SNS 참여 이벤트도 진행된다.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마음굴림 그림책, 마음굴림 컬러링북, 라벤더 향주머니, 굴림 파우치 등 정성껏 제작한 굿즈가 제공된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2025 부산국제불교박람회'에 참가해 체험형 부스 '마음굴림'을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해 부산국제불교박람회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체험 부스.

'마음굴림' 부스 관련 문의는 전화(051-403-7077)나 인스타그램(@maumgullim)으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현대불교신문은 언론불사와 생활불교 콘텐츠를 소개하는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부스에서는 독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불교언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구독 후원 법보시' 캠페인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런칭 홍보, 유튜브 콘텐츠 '사찰복덕방'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전법 콘텐츠를 알릴 예정이다.

2025 부산국제불교박람회는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을 주제로 8월 7~10일까지 열린다. 지난해보다 약 2배 규모로 확대된 이번 박람회에는 총 375개 부스가 참여해 명상 문화전, 명상 예술전, 사찰음식전, 선명상 체험존, 불교미술 전시, 무대 강연과 마음챙김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전통 사찰과 해양 휴양지를 연결한 복합 힐링 플랫폼을 제안하며, 불심의 도시 부산이 '국제 명상 웰니스 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에서 큰 호응을 얻은 팔정도 카드 체험 '히든 담마 챌린지'도 이어진다.

7월 25일까지 공식 누리집(www.busanbexpo.kr)에서 사전 등록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조선 불교출판의 혼, 통도사서 펼치다

통도사성보박물관 특별전 '불서 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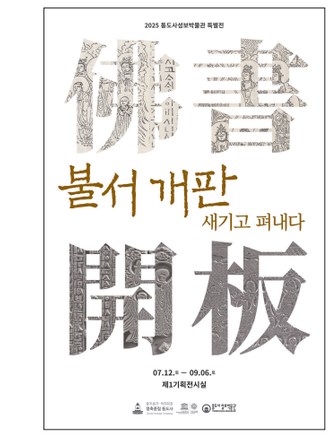
7월 12일 개막, 9월 6일까지
울산 운흥사 경판 등 110여 점

조선 후기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의 전통과 정신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진응 스님)은 7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2025년 특별전 '불서 개판(佛書 開板): 새기고 펴내다'를 개최한다. 전시는 통도사성보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개막행사는 7월 12일 오후 2시 괘불전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조선 후기 전국의 사찰들이 불서를 간행한 배경과 그 의미를 조명하고, 그 대표 사례로 17~18세기 활발한 간행 활동을 펼친 울산 운흥사에 주목한다. 운흥사에서 새긴 목판 50여 점과 통도사성보박물관이 소장한 조선 후기 불서 관련 자료 60여 점 등 총 11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조선 후기 불서 간행은 스님과 신도의 교육, 신앙 실천, 의례 수행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불서를 새기고 펴내는 일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중생의 안녕을 기원하는 공동체적 수행의 표현이다.




운흥사 〈묘법연화경〉 목판.
사진 제공=통도사성보박물관

진응 스님은 "불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고 펼치며 사람들의 삶을 밝히고자 했던 수행자들의 마음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이번 전시가 그 정신을 오늘의 우리에게 되새겨 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5-382-1001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핵 없는 한반도, 기억과 실천으로 걷는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생명존중 평화순례'

7월 19~25일, 6대 종단 부산서 합천까지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정산 스님)는 '해방 80년, 피폭 80년'을 맞아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생명존중 평화순례'를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이번 순례는 과거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방사선 피폭이라는 고통을 겪은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 고통이 오늘날까지도 2세대, 3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순례단은 부산시청을 출발해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까지 걷게 되며, 불교·성공회·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 등 6대 종단이 함께할 예정이다.



대표회장 정산 스님은 "무더운 날 잠시 걷는 일도 벅찬데,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아온 선조들의 삶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핵의 위협 속에서 여전히 전쟁과 불안이 반복되는 지금, 기억과 실천의 걸음이 절실하다"고 순례 취지를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무장애 관광' 위한 따뜻한 나눔

부산장애인복지관·해운대센트럴호텔 공동 주최

7월 4일 제1회 사회공헌 바자회 'WITHUS' 성료

사회복지법인 내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희)과 해운대센트럴호텔(대표 이종근)은 7월 4~5일 해운대센트럴호텔에서 제1회 사회공헌 바자회 'WITHUS 바자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바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행사장에는 물품 판매 부스와 먹거리 부스, 미니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마련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바자회는 플로라재단, EDP부산연제점, 제이와이코리아, 사바이사바이, 한울림라이온스코리아, 디자인제로 등 지역 기업과 단체들의 후원으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졌다. 여기에 부산관광공사 임직원들도 행사에 힘을 보탰다.



이승희 관장은 "바자회 수익금은 부산 지역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광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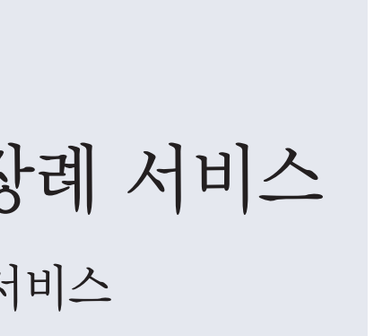
월정사-우든피시, 글로벌 명상수행 개최

전 세계 25개국 청년들 참여
7월 28일까지 오대산 일원서

강원도 오대산에서 전 세계 청년들이 평화의 서원을 세우는 특별한 수행 프로그램이 열린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미국 비영리단체 우든피시재단(Woodenfish Foundation, 이사장 이파 스님)과 7월 3일 '2025 월정사-우든피시 글로벌 명상수행 프로그램' 개막식을 개최했다.〈사진〉

(사)문수청소년회(이사장 해공 스님)가 주관한 이번 프로그램에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25개국에서 모인 청년 8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전통 불교의 출가 의례인 삭발식을 통해 마음의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고, '평화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시대적 사명으로서의 평화 실천을 서원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디지털 대전환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청년들이 삶의 방향을 스스로 묻고 그 답을 평화에서 찾으려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이 프로그램이 세계 곳곳에서 청년 리더십으로 이어져, 평화의 물결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글로벌 명상수행 프로그램은 7월 28일까지 월정사와 오대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업무협약식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